



운명 걸린 최대 승부처, 승리의 여신은...

NC·두산 뜨거운 화력대결로 1승 1패... 승부 원점 한국시리즈 3차전 승리시 우승할 확률은 무려 93%

프로야구 NC 다이노스와 두산 베어스의 한국시리즈(KS·7전 4승제)는 3차전에서 운명이 갈릴 것으로 보인다. NC와 두산은 지난 17~18일 한국시리즈 1~2차전에서 1승씩을 나눠 가져 원점에 섰다. 두 팀은 하루 휴식을 취하고 20일 오후 6시 30분 서울 고척스카이돔에서 한국시리즈 3차전을 치른다. 3차전이 최대 승부처가 될 전망이다. 역대 한국시리즈에서 1승 1패 뒤 3차전에 승리한 팀이 우승할 확률은 무려 93.3%(15차례 중 14차례)에

이른다. 유일한 예외 사례가 있다면 2003년 한국시리즈다. 당시 1승 1패에서 3차전에 승리한 팀은 SK 와이번스였지만 7차전까지 가는 접전 끝에 마지막에 웃은 팀은 현대 유니콘스였다. 당시 SK는 2승 1패로 앞서다 4~5차전을 내리 패해 버락에 몰렸다. 6차전을 잡고 7차전까지 승부를 끌고 갔지만 마지막 고비를 넘지 못했다. 역대 확률로 본다면 3차전 승리 팀이 한국시리즈 우승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 정규시즌 1위 NC는 1차전에 승리했지만 2차전을 아쉽게 내줬다. 하지만 운이 따르지 않았을 뿐 이번 포스트시즌을 지배한 두산의 '가을 에이스' 크리스 플렉센이 때 이닝 고전할 정도로 NC 타선의 타격감은 나쁘지 않았다. 9회말 타선의 집중력이 살아나며 좋은 분위기로 2차전을 마친 것도 NC가 3차전에서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요소다. 두산도 그동안 부진했던 오재일, 호세 페르난데스가 동반 부활했다는 호재 속에서 남은 경기를 치르게 됐다. 2차전 승리의 분위기를 3차전 이후로 이어갈 수 있는 여건은 마련됐다.

양 팀의 화력이 뜨겁게 달아오른 가운데 3차전 선발투수로는 마이크 라이트(30·NC)와 최원준(26·두산)이 나선다. 라이트는 올 시즌 두산전에서 4차례 등판해 2승 1패 평균자책점 4.09의 무난한 성적표를 받았다. 포스트시즌에서도 전천후로 활약 중인 최원준은 올해 NC전에서 5경기 승패 없이 평균자책점 11.88로 부진했다. 이중 선발 등판은 한 차례였는데, 7월 31일 NC를 상대로 4%이닝 7피안타 4실점으로 좋지 않았다. 창단 첫 우승을 노리는 NC와 통산 7번째 우승에 도전하는 두산, 과연 우승 확률 93.3%가 걸린 3차전 승리를 거머쥘 팀은 누가 될까. 연합뉴스



취임사 하는 류지현 LG 트윈스 감독. 연합뉴스

“LG 트윈스는 내게 숙명이자 가족”

류지현 감독 포부 밝혀 선수들과 일체감 강조

프로야구 LG 트윈스의 새 사령탑에 오른 류지현(49) 감독이 “포스트시즌 진출은 물론 그 이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취임 일성을 밝혔다. 류 감독은 19일 서울 송파구 잠실 야구장에서 열린 취임식을 겸한 기자회견에서 “LG 트윈스 프랜차이즈 1호 감독으로 선임돼 큰 영광과 함께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영광스러운 기회를 준 구단에 감사드린다”고 했다. 이어 “27년간 몸담은 LG는 내게 숙명이자 가족과도 같은 팀”이라며

“선수, 코치, 팬과 소통하고 협업해 더욱 발전된 LG 트윈스를 만들겠다”고 의욕을 보였다. 류 감독은 “올해엔 다소 아쉬운 성적으로 마무리했고, 내년에는 더욱 철저한 준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내 색깔을 내세우기보다 선수들의 잠재력을 끌어내는 게 내 몫”이라며 선수들과 일체감을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류 감독의 취임식에는 이규홍 LG스포츠 대표이사, 차명석 단장, 선수를 대표해 주장 김현수, 오지환, 진해수가 참석해 축하 꽃다발을 건넸다. 류 감독은 1990년 창단한 LG 트윈스가 배출한 첫 프랜차이즈 1호 감독이다. 연합뉴스

‘K리그 4룡’ 아시아 정상 탈환 질주

서울·울산·수원·전북 출격 4년만에 우승컵 되찾기 나서

국내 프로축구 ‘K리그 4룡(龍)’이 4년 만의 아시아 정상 탈환을 위한 질주를 시작한다. 21일(이하 한국시간) 열리는 FC 서울과 베이징 귀안의 경기를 시작으로 울산 현대, 수원 삼성, 전북 현대가 차례로 일정을 재개한 2020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ACL) 경기를 벌인다. 한국 팀이 이 대회에서 우승한 건 2016년 전북이 마지막이다. 이후 일본 팀이 두 차례, 사우디아라비아 팀이 한 차례 가져갔던 아시아 정상 영예를 K리그 4룡은 되찾아 와야 한다. 이번 대회는 지난 2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탓에 중단됐다가 카타르 도하에서 모여 치르는 방식으로 재개하면서 대회 방식이 확 바뀌어 변수가 많다. 조별리그 잔여 경기 일정이 3일 간격으로 뿔뿔해졌다. 내달 4일 조별리그가 마무리되면 6월 16강전을 시작으로 19일까지 결승전이 치러진다. 따라서 체력 관리를 얼마나 잘 해 내느냐가 성패에 큰 영향을 줄 전망이다. 코로나19 방역 때문에 철저하고 고립된 채 대회를 치러야 하는 점도 변수다. 4룡 중에서 우승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건 단연 H조의 전북이다. 올해 K리그1과 FA컵에서 우승컵을 들어 올린 전북은 ACL에서도 우승하면 아시아축구 사상 첫 트레블(3개 대회 우승)의 금자탑을 세우기 때문에 동기부여가 잘 돼 있다. 전북은 22일 오후 10시 상하이 상강(중국)과 첫 경기를 치른다. K리그1과 FA컵에서 모두 전북에 밀려 준우승에 그친 울산도 ACL 우승으로 명예 회복하겠다는 각오다. 원두재, 이정용, 윤빛가람 등으로 이뤄진 울산의 중원은 아시아 무대에서도 막강 전력이라는 평가를 받을 만하다. F조에 있는 울산은 21일 오후 10시 상하이 선화(중국)와 조별리그 2차전을 치른다. 울산은 FC도쿄(일본)와의 1차전에서 무승부에 그쳐 상하이를 상대로 첫 승을 노린다. 정규리그에서 부진을 거듭하다가 결국 파이널B로 내려앉은 등 최악의 시즌을 보낸 수원과 서울은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G조의 수원엔 ‘캡틴’ 염기훈이 A급 지도자 강습회 참석으로 함께하지 못한다. 2019시즌 리그 득점왕 타가트와 주전 수비수 헨리도 부상으로 한국에 남았다. 1패를 기록 중인 수원은 22일 오후 7시 중국 최강 광저우 헝다를 상대로 첫 승에 도전한다. E조의 서울은 21일 오후 7시 베이징 귀안(중국)을 상대로 조별리그 2연승에 도전한다. 연합뉴스



황선우 ‘힘찬 출발’ 19일 오후 경북 김천시 김천실내수영장에서 열린 2020년 경영 국가대표 선발대회 남자 자유형 200m 결승에서 황선우가 힘찬 출발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임성재 세계 1위 될 잠재력 있어”

새 캐디와 꿈꾸는 밝은 미래

미국프로골프(PGA) 투어에서 뛰는 임성재(22)는 두 달 전부터 새 캐디와 함께하고 있다. 2010년대 초반까지 약 6년 동안 현 남자골프 세계랭킹 1위 더스틴 존슨(36·미국)의 캐디백을 들었던 보비 브라운이다. 19일(한국시간) 미국 USA투데이에 따르면, 지금 임성재 나이일 때의 존슨을 지켜봤던 브라운은 “존슨과 임성재는 사교와 오렌지 차이”라며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다고 밝혔다. 하지만 “임성재는 미래에 세계랭킹 1위가 될 잠재력이 있다”며 임성재의 장래를 밝게 점쳤다. 임성재는 2주 전에는 퍼터도 스코티 캐머런의 SSS 모델로 교체했다. 지난 3월 휴스턴 오픈에서 PGA 투어 첫 승을 거뒀을 때 쓴 기존 퍼터도 SSS 모델과 마찬가지로 스코



임성재. 연합뉴스

티 캐머런의 말렛 퍼터였지만, 새 퍼터는 헤드가 반달 모양이라고 임성재는 설명했다. 임성재는 지난달 말 조조 챔피언십에서 새 퍼터를 연습해보고 이달 초 휴스턴 오픈부터 본격 사용했다. 임성재는 “내가 원하던 스트로크가 잘 나와서 바뀌었는데, 원하던 스트로크가 잘 나왔다”며 만족감을 드러냈다. 연합뉴스

“제주솔라에너지”와 함께 미래를 만들어갈 젊은 열정을 찾습니다

2020년 하반기 사원모집

모집기간 2020년 8월 ~ 채용시까지 수시 모집

지원방법 워크넷/이메일/방문/우편으로 지원서류 제출

지원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모집직종

- 태양광 발전설비 시공 및 A/S 기술자
 - 경력자 또는 해당분야 자격증 보유자 우대
 - 팀단위 협력 파트너(하도급) 별도 상담
- 전기 및 토목 분야 기술자
 - 공사/설계/공무/인허가 경력자 우대
 - 해당분야 자격증/경력수첩 보유자 우대

주택용 태양광 보조신청 접수

- 한국에너지공단 지원사업 추가접수중
- 주택용 태양광 3kW 공사비 50% 보조
- 자부담금 251만원
- 선정방식 : 선착순 (예산소진시 종료)

지금 전화로 신청하십시오!

태양광은

제주솔라에너지

742-5775

태양광발전 전문기업 2019~2020 제주에너지공사 참여기업* 2020 한국에너지공단 참여기업* 및 AS전문기업 제주시 노형로 356 www.jeju-solar.co.kr

*참여기업은 주관기관으로부터 기술인력, 시공실적, 회사신용도 등의 심사를 통해 매년 선정되며, 지원(보조)사업을 정식으로 수행할 수 있는 검증된 기업입니다.